

구민과 북구지역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제 8 호

2011년 하반기
(7.1 ~ 12.31)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의정소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발행일 2011년 하반기 제8호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전화 052-289-7160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표지설명 북구의회 전경

CONTENT

- 04**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의정활동
 - 제127회 제1차 정례회
 - 제128회 임시회
 - 제129회 제2차 정례회
- 09** 2011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질의내용
- 19**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 24** 결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 34** 사진으로 보는 의정
- 36** 구정소식
- 39** 의회민원상담실 이용안내
- 40**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설계하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어느 의회보다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은 물론, 직접 구민을 찾아가서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며 두루 살피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공식 발표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오토밸리 제2공구 개설 공사 확정, 소통을 통한 구민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방 자치제 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가 답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성과가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려고 한 것도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중요한 회기로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는 적절한 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겨울나기가 더 힘들고 겨울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의원현황 및 정수

의원현황

의 장		성명	안승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늘 주민과 함께하는 변함없는 봉사대장 되겠습니다”

부 의 장		성명	정윤석
		연락처	011-835-603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살기 좋고 행복한 북구를 위해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유 영 위 원 장		성명	윤치용
		연락처	010-5231-7321
		선거구	농소2·3동

“북구의 행복한 변화 좋은 일꾼으로 기억되도록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의 원		성명	이홍걸
		연락처	010-2950-3763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복지북구의 새로운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의 원		성명	이수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2·3동

“살기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 원		성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주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생활정치 펼치겠습니다”

의 원		성명	이혜경
		연락처	010-9448-1364
		선거구	비례대표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2014. 6. 30

■ 의회조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

제127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북구의회 제127회 제1차 정례회가 2011년 7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윤종오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안승찬 의장은 “제1차 정례회는 2010년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의안처리를 통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을 당부하고 특히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127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제128회 임시회 개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제128회 임시회가 2011년 10월 7일 개최되어 10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회기는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 계획이 타당한 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개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18건 심의의결 등

북구의회 제129회 제2차 정례회가 2011년 11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윤종오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18건과 결산 추경 등을 처리하였다.

안승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큰 틀의 정책 감사로 자리매김 할 것”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윤종오 북구청장은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통해 “소통과 화합, 조화와 상생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한 2012년 북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1,642억원, 특별회계 50억원 등 금년보다 20.8% 증액된 1,692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2011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 소회의실 조례안 심의장면

■ 회기운영 현황 2011. 7. 1~12. 31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1년	3	61	1	11	2	50

■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 타
제127회 2011.7.1~7.14	14	18	1	1	9			1			2	4
제128회 2011.10.7~10.17	11	22	1		14					3	1	3
제129회 2011.11.21~12.26	36	30	2		23	1		1	1	2		
합 계	61	70	4	1	46	1	0	2	1	5	3	7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 | 2011. 7. 1~7. 14(14일간)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염포동 주민센터) | 원안가결
 - 2010년도 염포동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신축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 취득 면적 증가로 인하여,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운영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자원봉사 인정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 활성화,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제3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수업료 감면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평생 학습 참여를 촉진,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 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을 활성화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실시로 자원봉사활동 관심유도와 참여분위기 활성화,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규정 마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사무국장 실비보상, 직무 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

제128회 임시회 안건처리 | 2011. 10. 7 ~ 10. 17(11일간)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 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행복일번지 울산북구”→“무룡산”, 분기 1회→매월 또는 분기별)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0467호, 2011.3.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여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 자전거주차장 설치면적 개정(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11.3.9)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 조문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2011.6.30)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예방과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승찬·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기금의 조성·재원·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 등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걸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개정(2011.7.14 공포, 2011.10.15 시행)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전의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되어 현행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감사기간 : 2011. 11. 22 ~ 11. 30(9일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 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 요구자료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 무 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361	20	22	86	103	99	27	4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 | 2011. 11. 21~12. 26(36일간)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실비보상 등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새롭게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참여의 기틀을 마련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통장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월성원전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 매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1가압장 부지내 위치하고 있는 연암동과 효문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등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삭제 등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1. 6. 7일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1.1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0년 10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市 일괄추진)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 추진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제66조의 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주민을 위한 각종대회를 추가하는 관련조항을 일부 보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개정(2011.7.14. 공포, 2011.10.15. 시행)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우리 구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료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 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
 -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단지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이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인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의 관련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문화의 집 업무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문화의 집 업무를 폐지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동 시설이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염포운동장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감사기간 : 2011. 11. 22 ~ 11. 30(9일간)
 - 감사요구자료(총 : 361건)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공통사항	기획홍보실	총 무 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계	102	7	5	29	32	25	4	•
시정요구사항	42	4	3	14	13	7	1	•
건의사항	60	3	2	15	19	18	3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질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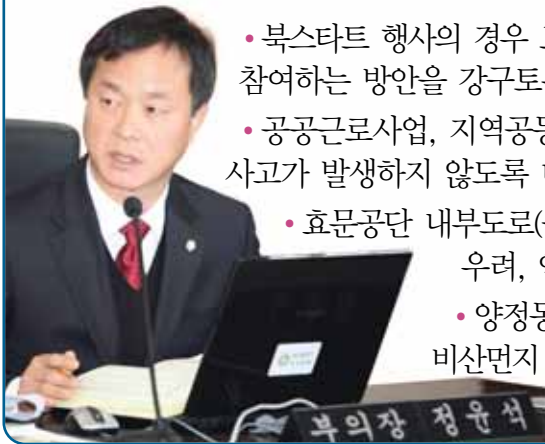
의장 안승찬

- 일반 주민이 도서검색 및 일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관내 일반 컴퓨터 설치를 검토하여 줄것과 자원봉사자들의 책수선 작업실 및 토론을 위한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울산 북구가 좀 깨끗한 동네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생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깨끗이 만들어가는 고민들과 사업계획들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부의장 정윤석

- 북스타트 행사의 경우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홍보함과 아울러 다문화 가정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다.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노력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다.
- 효문공단 내부도로(울동마을, 산성마을 주도로)가 차도보다 인도가 낮아 주택지 침수 우려, 인도 미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건의하였다.
- 양정동 현대차 직원 숙소 철거에 따른 현대2차 아파트 주민의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입주민들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검토 요구하였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 원전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은 만일의 사태 시 방사능으로부터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환경방사선 측정소 설치와 방사선 측정 장비 구입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불법 투기 쓰레기 단속 강화는 물론 주택가 등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적기에 수거 및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정을 준수토록 당부하였다.
- 원동현대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으로 상습침수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대책 수립 건의와 이화천 이화초교 근처 교량 보강을 요구하였으며 홈플러스 앞 볼라드 개선 및 가로수 개선 등 도로 개·보수토록 건의 하였다.



의원 이홍걸

- 바다수영장 운영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바다 수영장의 수질 확보, 음수대 추가 확보, 공기주입기 추가 확보, 탈의장 및 샤워실내 모래 배출 시설 확보, 배출 쓰레기 적기 처리, 안전요원과 관리요원의 적정선확보 등을 통해 향후 바다 수영장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하였다.
- 현재 조성계획중인 송정수변공원의 내방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송정수변공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원지마을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보수 또는 개설 등을 검토 건의하였다.



의원 이수선

- 2011년 시범으로 실시한 농소1동 도서관의 도서교환전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므로 가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도서에 대한 교환행사나 도서기증 행사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급격한 인구 증가로 농소지역은 버스 노선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버스노선 확대 및 배차를 늘려주기를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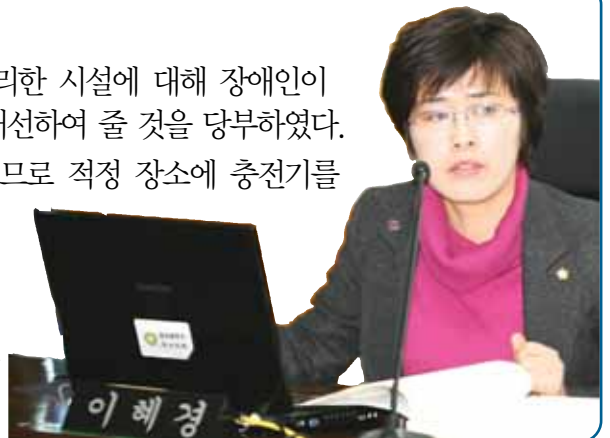
의원 강진희

- 즉시 처리가 가능한 현장민원 및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현장민원 즉시처리 가동팀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청소년자활지원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위상 강화는 물론 이용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의하였다.
- 여성정책 기본시책 수립 시 우리 구 여성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내실있는 여성 정책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당부하였다.



의원 이혜경

- 우리 구 청사내·외 각종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실제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정 장소에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건의하였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대민 홍보와 모범 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건의하였다.
- 사고위험이 높은 연암제일교회 앞 곡각지점 횡단보도 이전을 건의하였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01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

■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0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 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3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심의의결

의원 발의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27회 제1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제128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제129회 제2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

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4 3/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농소3동 도서관 도서정리 등 일일 사서 체험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농소3동 도서관에서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반납과 서가정리 등 일일 사서 체험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사항 청취 및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해 도서관 근무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05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 식당운영 배식 및 프로그램운영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자원봉사활동지역을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체험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4/4분기에는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지원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아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06 북구의회 4년연속 의정비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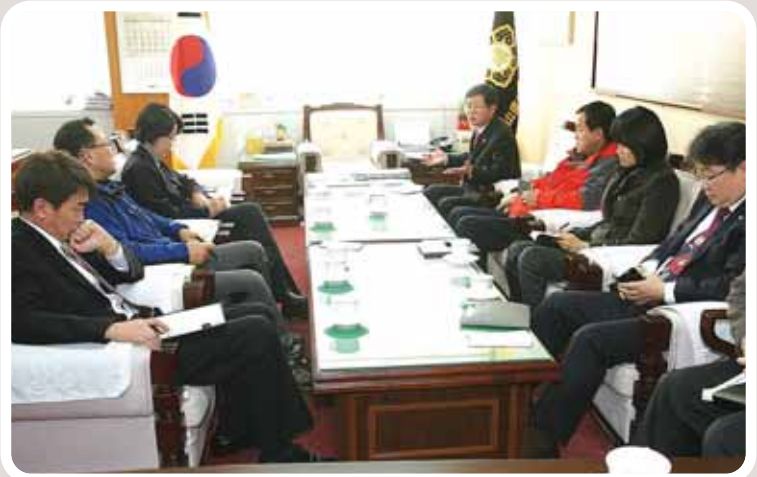
4년연속 의정비 동결 결정, 서민경제 활성화 동참 및 구재정 부담 최소화

북구의회는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기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2011년 9월 7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의원들의 2012년도 의정비는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3,887만원이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전 의원이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07 추석맞이 복지시설방문 위문품 전달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외 2개소 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2011년 9월 7일 오후 3시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 장애인복지센터와 북구어르신 행복마을 그리고 이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8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관련 등 벤치마킹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방안 모색

북구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 벤치마킹을 위해 2011년 9월 21일부터 1박 2일 통영 연대도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통영 연대도의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현장답사 벤치마킹을 통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구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등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는 내실있는 체험·견학 일정이 되었다.



09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북구지회는 2011년 12월 22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북구의회 의원들과 달천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남녀 합반이 필요한가'를 의제로 정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질문 및 답변 등의 의정활동 체험시간을 가졌다.



결의안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7회 제1차 정례회(2011. 7. 14)
- 결의안 발의자 : 윤치용의원의 6인

산업수도 울산의 대동맥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오토밸리로(路)는 지난 2000년 2월 착공을 시작하였고, 2006년 2월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전체 12.46km 공사구간 가운데 수년의 공사 끝에 2007년 제1·제3공구인 5.46km 개설이 완료됐으며, 제2공구 7km 가운데 3km는 현재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남은 제2공구 3구간 4km 구간은 울산시가 요구한 사업비 1,034억원 국가의 예산 지원이 없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4,400여억원을 들인 제1·제3공구도 ‘반쪽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등 도로 개설에 나선 지 11년이 지났지만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오랜 기간동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고비용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과 북구지역 기업체 노사,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개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토밸리로 제2공구의 조기 개설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3일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국가 권익위원회를 방문해 4만 2천 920명의 의사를 담은 주민 청원서 연명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달천농공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들과 함께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건의문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북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총 930여개 중소기업과 17개 노동조합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2개 중소기업과 12개 노동조합 등 모두 1,30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의 참여 과정을 보듯이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개설은 단순한 도로 개설공사가 아니라 북구 주민의 편의 차원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며, 울산광역시 발전의 미래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단일 완성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930여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기업도시인 울산광역시 북구의 핵심 거점 물류 도로이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된 오토밸리로가 제2공구 개설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오토밸리 제2공구가 조기에 개설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결 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오토밸리로 제2공구 개설 지연에 따른 시민의 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설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의안

국내원전에 대한 안전종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9회 제2차 정례회(2011. 12. 26)
- 결의안 발의자 : 이해경의원

울산시민들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영광 5호기, 신고리1호기, 2월에 영광 5호기, 신고리1호기, 4월에 고리1호기, 3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6월에는 고리2호기, 월성1호기, 10월에 울진 6호기, 12월에 울진1호기, 고리3호기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우리나라 원전 21기중 8기 38%에 달하는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달여간 원전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원전 안정성이 세계최고라는 결론을 내린 뒤에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다른 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에 대해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체르노빌사고 이후 30년, 후쿠시마 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원전사고로 전세계가 불안감과 두려움에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원전사고로 일본은 수천만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백만명 이상의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경험 할 것이라고 한다.

졸속적이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뤄진 원자로 가동중단에 대해 한수원은 대수롭지 않은 일쯤으로 여기고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능 현상은 없다' 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만도 11건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중 6건이 고리원전에서 일어났다.

고리1호기의 경우 전원계통에 이상으로 불시에 가동을 멈췄고, 2호기 사고의 원인은 농사용 폐비닐이 송전선로에 걸려 전기공급이 끊겼으나 보호계전기가 작동을 계속 하여 가동을 중단했고, 또 고리 3호기는 2차계통의 터빈 발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손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케이블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만 중고부품을 새것으로 속여 시공한 회사의 비리 등 최근 일부간부 직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측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커녕 일본원전 사고이후 국민들이 예민해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원자로를 정지시킬 때는 출력을 갑자기 낮추지 않고 서서히 낮추어 원자력 발전기에 손상이나 무리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런데 원전이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이후 원전의 결함과 고장,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리원전 6건 사고는 고리 원전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행 한뒤 2008년 1월 수명 연장하였고, 2호기는 1983년 7월, 3호기는 1985년 9월, 4호기는 1986년 4월에 가동을 시작 하였다.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원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어떻게 울산시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전이 안전 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이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시 한번 올해만도 11건의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금까지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했던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전 안전점검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 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수명연장중인 고리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노후원전에 대해 노후화 순서대로 가동을 중단하여 일본과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원전 가동 중단과 상관없이 원전 반경30km 이내 거주민에 대해 상시 방재대책과 방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어리 석음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원전은 당장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오늘도 울산광역시청 앞에는 80번째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국민 들은 바란다.

구정질문 및 답변



- ◎ 의 원 : 강진희의원
-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 7)
- ◎ 질문요지 : **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



첫째. 우리지역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해 어떤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현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전담기관인 “울산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사례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

울산 전체로 볼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는 최근 3년간 총 184명으로 매년 6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1,900여회로 상담관리 되고 있고, 피해자 중 43%가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피해사례는 표면적 통계자료이고, 장애인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성폭력 피해 상담을 꺼리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더 많이 존재할 것임.

•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동강병원 3자 협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등을 365일 연중 무휴로 지원하는 <울산 원스톱 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울산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과 수사, 의료, 법률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울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우리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 이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둘째.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지역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등 장애인학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사회적 약자가 겪는 피해 등 모든 사회적 문제는 사전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예방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우리구에 소재한 장애인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직원 및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제절차, 성폭력예방 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최근 3년간 태연학교 에서는 총 4회, 메아리 학교에서는 총 7회가 실시되었음.

셋째. 지역내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총 14개소가 있음.

14개소 시설별로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은 종사자 및 장애인을 각각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자체 실시되었음.

향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과 교육청, 지역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소통, 교류하며 지혜를 모아서 장애인들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에 노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민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다각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나아가,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한 시책을 뛰어 넘어 장애인이 행복하면 비장애인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 모든 시책의 기획단계에부터 염두에 두어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복구』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음.

구청질문 및 답변



- 의 원 : 윤치용의원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 17)
- 질문요지 :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



첫째. 본 사업은 잠정적으로 대략 85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주체가 어디인지, 사업추진에 대한 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광역시와 어떠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시 지정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은 울산광역시 2008년 12월 29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으로 유적전시관을 건립토록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바 있음.
-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간담회 개최와 최종 2010년 9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소3동 전체 주민 의견으로 현재 부지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점이 도출된 만큼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의 입장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당초계획인 유적공원조성사업에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우리 구청이 해당됨.

둘째.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시비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위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부지매입, 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시설운영주체, 콘텐츠 확보방안, 시설운영계획 수립여부, 운영·유지비 확보방안 등)을 수립하여 광역시에 예산 신청하고 광역시는 계획서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당초예산에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선행조건 행정절차 이행 후 국·시비를 요구토록 하고 있음.

셋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에 있어 용역 발주가 늦어진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용역발주를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과업지시서 작성 등 기본용역계획 검토 절차와 계약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늦어졌음.
- 2011년 10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여건 조사 분석 중 설문조사 진행 및 분석, 상위계획검토, 기본계획구상, 관련 문헌조사를 완료하였음.
-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는 사업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종류 규모, 예산에 대한 검토, 유사 시설에 대한 사례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 그리고 용역전반에 걸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11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후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으며 추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넷째.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착공 등 전반적인 세부 추진 일정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2012년 2월에 완료예정이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2012년 3월에 울산광역시에 요청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임.
- 2012년 당초예산에는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반영 되어있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임.

다섯째. 사업 장기화시 사계절 꽃 식재나 작은 휴식 공간 및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 여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다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휴식공간 및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국고 보조금과 시비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앞으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 북구의 새로운 문화명소 및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음.

구정질문 및 답변



- 의 원 : 이수선의원
- 질문일시 : 제129회 제2차 정례회(2011. 11. 21)
- 질문요지 :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관한 질문**



첫째. 중산동 목욕탕 건립은 총 사업비가 건축비 24억원을 합하여 31억 4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폐쇄와 주민 지원금의 사용처 등 주민 숙원사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음.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주민 지원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산동 615번지에 대지면적 235.95평(780㎡)에 건축면적 83.64평(276.49㎡), 지하1층, 지상3층인 연면적 223.18평(737.77㎡)의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 및 왜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했는지 부지선정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북구지역 현안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이후에 2010. 9. 13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타 시설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음.
- 공청회 개최결과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지원 기금으로 목욕탕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참석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공청회를 마친바 있음.
- 2010. 10. 12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2010. 10. 1 ~ 11. 30일까지 지역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하여 82.58%의 압도적 찬성으로 목욕탕 및 체력단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따라서, 중산동 615번지 목욕탕 부지선정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 지원협의체회의,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모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계획된 사업부지는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00%로 바닥면이 넓은 가로형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활용성이 매우 용이한 부지임.

둘째. 중산동 615번지 기존 상가건물 부지 매입과 영업보상 이주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매입시기가 1년 이상 늦어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이며, 목욕탕 부지 보상의

총 7억4천1백8십 2만5천7백9십원 중 236평(780㎡)의 토지 매입비로 3억5천7백2십4만원을 사용 하였으며,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비 등 보상비로 3억8천4백5십8만5천7백9십원이 소요 되었는데 이와 관련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각종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이든 아니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보상 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보상액의 산정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졌음. 보상과정에 시간이 좀더 지연되었다고 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영업보상과 이사비용 등도 법적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음.
- 그리고 사업의 지연부분도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하여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으나 협의 기간동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준비해 왔기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음.

셋째. 중산동 목욕탕 부지는 부지형태가 부정형이고 주차대수 또한 7대로 설계되고 있어 주차장이 협소하고 목욕탕이 협소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당초부터 인근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감정가격보다 2배정도 높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을 할 수가 없었음.
- 현재 설계 과정에 7대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은 1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주차장 추가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이미 지난 11월 3일 최종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세부 시설 배치까지 주민합의를 이루고 본격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
- 향후, 사업추진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북구의 새로운 복지문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음.

서면질문 및 답변



- 의 원 : 이해경의원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 7)
- 질문요지 :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에 관한 질문



첫째. 작은도서관이 29개에 이르는 조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돕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 사업을 담당할 책임 사서 및 구립도서관별 데스크 사서채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민선 4기 출범 이후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조성 및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당초 작은도서관 업무는 중앙도서관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010. 10. 1.자로 신설된 도서관정책담당에 작은도서관 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구가 작은도서관 정책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작은도서관이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서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많은 만큼 단계적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둘째.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있어 행사를 분산해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 진행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올해까지는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구립도서관 5개관에서만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 공간이 확보된 67㎡ 이상 작은도서관 9개소(2011년 조성 3개소, 2012년 조성 6개소)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내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셋째. 지역 특성과 도서관 이용자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권역별, 지역별 운영위원회로 전환할 것과 이에 따른 구립도서관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민선 4기 출범 이후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개설, 북스타트 확대 운영, 사서도우미 교육과정 강화,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신설 등 책 읽기 좋은 북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체계에서 권역별 운영위원회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향후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권역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넷째. 특성화된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기위해 5개 구립도서관 중 1~2개 정도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전문관장 위촉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구립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임.
- 현재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직영할 때보다 관리비용 증가, 인건비 축소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정보 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음.

서면질문 및 답변



- 의 원 : 정윤석의원
- 질문일시 : 제129회 제2차 정례회(2011. 11. 24)
- 질문요지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질문**



첫째. 2001년 이후부터 2006년 12월 말경 시공사인 평창토건 부도까지 우리구 조치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2001년 5월경에 연대보증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2000년 시·구 합동감사이후 연대보증인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토록 수차례 촉구요청을 하였고, 조합으로부터 2001년 5월경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중 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이후 평창토건이 부도가 날때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 매각침체 등의 사정으로 시공사 유치가 어려워 연대보증인 선정이 지연되었음. 시공사 평창토건 부도 이후 시공업체 부재로 연대보증인 또한 선정될 수 없었으며, 최근 시공사가 재선정되어 조합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

둘째. 기성금을 90% 범위 내 지급 및 감리조사 첨부 등에 대하여 감사이후 이행 확인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구청장 답변

• 2000년 시·구 합동감사이후 조합에 기성금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여 각종 분담금 및 세금 등을 납부토록 서면촉구, 구두 및 유선으로 수차례 촉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 이행에 따라 조합장을 2001년 9월경 고발 조치 하였음. 그 이후 체비지 매각에 따른 대책을 모색 하기 위하여 수차례 조합과 회의를 하였고, 2008년경 체비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의 자료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음.

셋째. 2001년 9월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에 의거 개별 건축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조합에 납부토록 조치했다는 것은 수 백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한것인데 농지법 관련 어떤 규정에 근거 한 것인지 여부?

■ 구청장 답변

•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는 구농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착수 전에 30/100을 납부하게하고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 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허가취소 또는 관계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체납금은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음.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경우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체비지를 압류한 상태이며, 그 압류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체납된 농지조성비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하더라도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개별건축주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또한 감액이나 면제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있는지 여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진장·명촌지구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99. 7. 16일에 농지조성비 등 20,451백만원을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부과 하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2001. 9. 1일까지 1,243백만원을 납부 후 19,208백만원을 장기 체납함에 따라, 구)농지법 제41조에 의거 허가취소 또는 관련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렇게 할 경우 구획정리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장기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민원발생, 체비지를 매각하여 각종 부담금과 사업비를 조달해야하는 조합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점, 개별건축주가 불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 건축 허가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체납액 전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여 2001. 9. 7일부터 체비지를 압류하고 개별 건축 허가시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농지 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음. 현재,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액 20,452백만원 중 20,127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25백만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초 부과한 금액에서 감면이나 면제해 준 사실은 없음.

넷째. 복구청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지주 및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불법 행위조치 및 관리 등 이행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이홍걸의원
- ◎ 질문일시 : 제127회 제1차 정례회(2011. 7. 14)
- ◎ 질문요지 : **코스트코 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재논의 촉구**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관내 입점에 따른 우리청의 “건축허가신청, 최종반려”에 대해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 진장동 283-3번지 일원의 부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발전으로 물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대규모 점포만이 입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법에 따라 울산진장유통단지조합측은 진장유통단지내 상기부지에 코스트코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심의신청의 반려에 따른 행정심판과 건축 허가 신청반려에 따른 행정심판 개최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6월20일 “건축허가신청 최종반려”라는 우리청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유통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반려된 코스트코의 허가신청 반려가

「건축법」제11조 및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제반관계 법령의 위법, 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청의 결정이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절차내지 처분이냐 하는 점이 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심의와 허가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한 복구청의 행정에 대해 먼저 행정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묻고 싶으며, 또한 향후 예상될지도 모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과 사업지연에 의한 조합측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복구청의 행정테미지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받게 될 금전적인 피해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논리내지 타당성으로 접근하여 행정을 집행할 시혹 야기될지도 모르는 피해와 주민대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상치되는 특정단체내지 세력에 대한 행정이 과연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이해경의원
- ◎ 질문일시 : 제127회 제1차 정례회(2011. 7. 14)
- ◎ 질문요지 : 노후한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경 의원입니다.
노후한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 5분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에 의한 수명연장은 또
다른 후쿠시마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핵폭발 사고의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보면서 자연재앙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한편,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에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핵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탈핵
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정책의 수정은 커녕 핵발전소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원전1호기는 폭발 한달전 수명이 연장된 기종
이었고, 그로 인해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수명연장 원전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우리는
일본과 원자로 노형이 다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비를 보강하였다'고 하고 교육 과학기술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과 수명연장은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해야 합니다.

30년 예측으로 설계된 월성1호기 핵발전소는 가동율
8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90%에 가까운 가동으로
조기 노후화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연쇄핵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노후한 원전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 폭발에 의해 일어난 핵사고
였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수소제거 설비가 없어 28년간 가동해
왔습니다. 한수원은 2003년 안정성 검사에서 주기적으로
수소 제거설비를 하라는 지적에 받았음에도 수소 제거
장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1일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 중단된 월성1호기를

지난 27개월간 7천억원을 들여 압력관 등 주요 부품만
교체한 채 수소 제거장치 없이 2011년 7월 17일 부터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월성 1호기는 재가동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월성 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으로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핵연쇄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으며, 월성
원전 1호기와 동일한 유형이 25년 전 체르노빌 원전 유형
이었습니다.

넷째, 월성원전 앞바다 10km 지하에 50km의 활성 단층이
존재해 해저에서 지진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지진으로
지질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10km에 위치해 있으며,
울산의 100만 인구가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반경30km
이내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면 지진과 핵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울산에서 어떤 참상이 발생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진 국가는 수명연장을 선택할 때 새원전
건설이 사회 경제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때 불가피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수명 연장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쫓아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로 세계는 핵포기 정책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노후 원전을 폐쇄하였고, 필리핀이
원전 재가동을 중단했고, 이탈리아, 스위스와, 대만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도 핵발전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권의 제기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 상황은 후쿠시마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교훈삼아 핵발전 정책에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과 수명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
하고, 현재 수명연장 가동중인 고리1호기의 가동도 중단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 발언의원 : 강진희의원
-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 7)
- ◎ 질문요지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행정과 정책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 6월 울산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장애인 여중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울산에서는 장애인 단체 및 시민·여성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9월 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가해자 공무원을 용서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장애인 단체 및 시민·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팬티를 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에, 울산시민들이 공무원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공무원 자신의 직책과 직위가 다 기재되어 있어 개인 공무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감싼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수년 동안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여학생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한 것을 어떤 이유로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해자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인맥이 넓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는 단지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일 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저의 발언을 듣고 있을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 공무원은 단 한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 의원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악의 없이 평소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행실을 보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본 사건을 왜곡되게 동료공무원에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 가해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아닌가 싶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씩 올리는 2차 가해 행위가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의 함께 나서서 우리 북구가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Photograph Story

제12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2011.
7. 1




북구마을기업 1호
사랑길 제전장어. ☎52-293-8302

▶ 북구마을기업 1호
사랑길 제전장어 오픈



2011.
7. 14



오토밸리로
(연암IC ~ 화봉IC간)
도로 개통 ▶



2011.
8. 17

Photograph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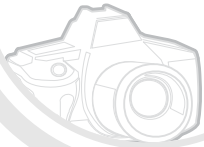
◀ 제12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2011. 10. 16



제7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 체육대회 개최 ▶

2011. 11. 11



◀ 제3대학 제4기 졸업식

2011. 11. 29





‘참여와 소통으로 상복 터졌네!’

(구 신설이후 첫 대통령표창 등 잇따라 수상)



북구청은 지난해 구 신설이후 처음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굵직 굵직한 상들을 잇따라 수상했다.

경제일자리과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서 기관 및 개인 대통령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원을 받았으며, 사회복지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복지지원과 소속 북구 자원봉사 센터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건설방재과는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와함께, 농수산과가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관협력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기획홍보실은 재정조기집행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종오 구청장은 “지난 1997년 구 신설이후 처음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직원뿐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을기업 1호 '사랑길 제전장어', 전국구 스타로 우뚝

(지역에서 유일 우수마을기업 선정)

북구청은 12월 28일 오후 1시 30분 구유동 ‘사랑길 제전장어’에서 윤종오 구청장과 김명찬 마을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마을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북구 마을기업 1호인 사랑길 제전장어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500여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랑길 제전장어는 사업계획 이행실적과 안정적 조직구성 및 운영,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도 등 9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업개발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7월 문을 연 '사랑길 제전장어'는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이미 지역뿐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강동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마을주민 7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시비 등 총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숯불 곰장어 및 장이구이를 옛 방식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김명찬 대표는 "처음 사업 아이템을 잡을때부터 어느 정도 성공을 확신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북구청과 주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마을기업을 발판으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도 비켜간 배움의 열정'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 개최)



북구청은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윤종오 구청장과 안승찬 북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울산여성회 북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8개 동 및 문화센터 10곳의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참여한 어르신 107명의 수료식 및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생을 대표해 송정동

오피레 할머니가 한글교실 운영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했으며, 이어 수료증 수여 및 한글교실 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특히, 한글교실 개강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강동동 이연이 할머니를 비롯한, 명촌문화센터 최말순 할머니 및 이재순 할머니, 송정동 황정심 할머니 등 4명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수료식에 참석한 황정심(77) 할머니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글 배우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며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간판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내 읽는 모습이 너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한글교실을 다니며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정동 한글교실 강사로 활동한 김말순씨는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개강했을때 한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무척 놀랐다"며, "매주 2번의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오히려 제 자신이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어르신들로부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앞으로 강사 인력을 좀 더 늘려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고, 한글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열정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 등산로 QR코드 서비스 제공

북구청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2천만 시대를 맞아 등산로 종합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장소는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 무룡산 매봉재를 비롯해, 효문운동장, 동대산 맨발숲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달천아이파크 2단지 등 관내 5개 곳의 등산로 종합안내판으로, QR코드에는 북구 등산로 안내뿐 아니라 지명 유래, 산책로 주변의 볼거리, 풍경사진 등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북구는 내년에 주요 등산로 입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GPS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란 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산행시 QR코드를 활용한 등산로 안내서비스를 활용할 경우보다 많은 볼거리와 정보제공으로 산행의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F&Q

의회민원상담실 이용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민원상담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실 요일별 근무의원

상 시 근 무		월	화	수	목	금
						
의장 안 승 찬	부의장 정 윤 석	의원 강 진 희	운영위원장 윤 치 용	의원 이 수 선	의원 이 혜 경	의원 이 홍 결
연락처 010-6587-1287	연락처 011-835-6035	연락처 010-8610-4748	연락처 010-5231-7321	연락처 010-2833-1929	연락처 010-9448-1364	연락처 010-2950-3763

시간 10:00~17:00

장소 의원실(5층)

내용 각종 민원 불편 ·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수렴

방법 요일별 의원 1명씩 윤번제 근무 방문 · 전화 · FAX · 우편 · 의회홈페이지 상담

※ 당번의원 및 근무시간은 의정활동 일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화 289-8111, 219-7520

FAX 219-7529

주소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방청안내

•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의회방청

•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교부한다.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의 및 접수처

• 의회사무과 : TEL. 052-289-7160, FAX. 052-219-7549

